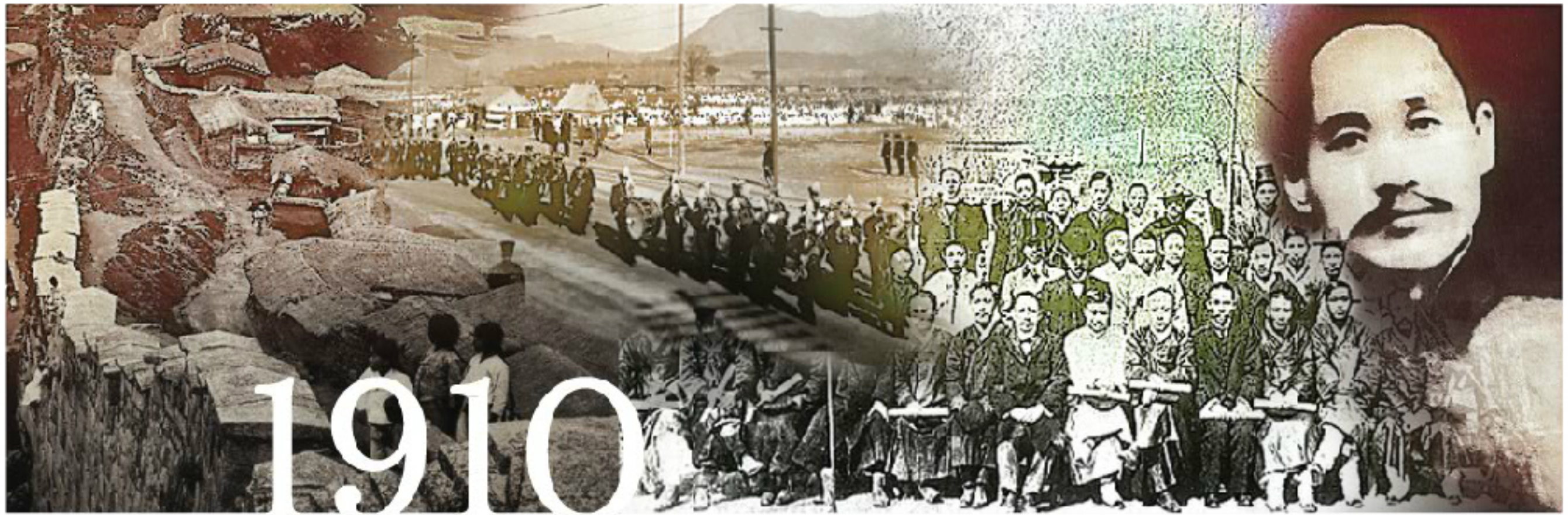




1910년대, 이 시기 문학은 근대문학의 태동기이다.

한일합방으로 국권이 상실된 시대,
당시 문인들은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 계몽 운동 전개를 한다.

이 시기에 충북 대표 문인으로
민족적 성격과 근대적 성격 지양의 단재 신채호가 있다.

민족적 성격과 근대적 성격의 지양, 신채호

시종일관 민족주의의 진보성을 견지하고 끝까지 민족의 지조를 지킨 애국적인 문학인 신채호



단재는 일찍부터 청주 상당산성 동쪽 산동지역에서 신규식, 신백우 등과 함께 삼대 천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다. 게다가 일제는 조선의 삼대 천재로 홍명희, 이광수, 최남선 등을 꼽았는데 이 세 사람을 뛰어넘는 천재가 바로 단재라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단재만큼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선각자도 흔하지 않다.

그러나 그가 더욱 우리에게 그 이름을 빛나게 남기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천재성을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쳤다는 점이다. 1936년 여순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단재의 삶은 우리 민족의 근대사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01 단재 신채호의 탄생과 성장 : 1880 - 1905 / 1-25세

단재 신채호는 1880년 12월 8일(음력 11월 7일) 대전광역시 동구 어남동 도리미(충청도 회덕현 산내면 어남리 도리미)에서 가난한 선비 신광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그의 부모는 논마지기는 고사하고 밭조차 버젓한 것이 없었으니, 산간 밭을 개간하여 보리와 콩, 옥수수 농사를 지어 허기를 채우는 지경이었다. 어린시절을 회덕 어남리에서 보낸 신채호가 여덟 살이 되던 1887년에 부모의 고향인 귀래리로 옮겨가서 형 재호와 함께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10여 세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명석했던 그는 다른 학생보다 빠르게 1898년, 성균관에 들어가서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전후에 국권회복을 위하여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고 『독사신문』과 같은 논단으로 대표되는 그의 사상은 훗날 민족주의 사관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단재 선생의 생가

대전광역시 동구 어남동 도리미의 생가와 생가를 알리는 표지석

02 국내에서의 활동 : 1905-1909 / 25-29세

을사늑약 이후, 단재는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민족영웅을 소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족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을지문덕』과 같은 전기소설로 창작된 것이다. 1907년, 자강운동이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신민회에 가입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참가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단재의 소설창작과 논설쓰기는 상통한다. 그리고 신민회 가입이나 국채보상운동 역시 상통한다. 모두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념이었던 것이다.

1909년, 그를 포함한 지사들이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했지만 일제의 마수가 조선의 운명을 끊어가고 있었다. 이듬해 4월, 일제강점을 예견한 단재는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靑島)로 망명했다가 다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가면서 조국을 떠나 유랑의 일생을 살게된다.



03 단재의 활동과 사상 : 1909-1919 / 24-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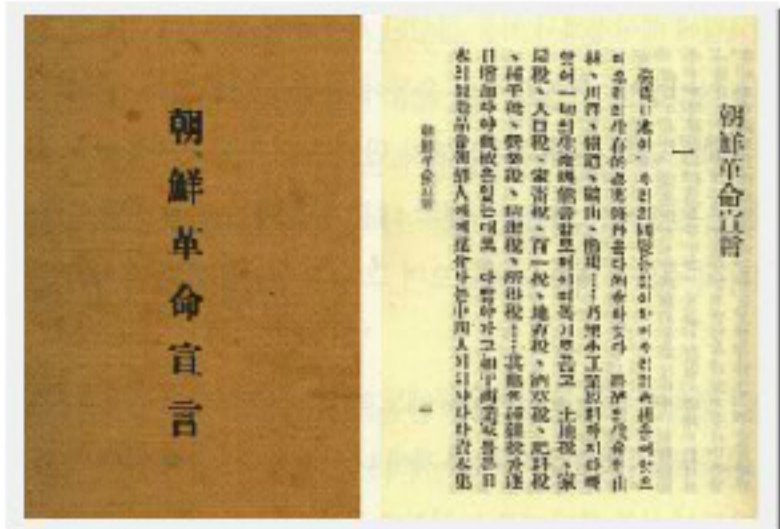
1913년, 신규식의 주선으로 상하이로 옮겨간 단재는 박은식, 조소앙 등과 박달학원을 세워 교육운동을 전개하며, 서간도에서 활동하던 그는 1915년 이회영의 권유로 베이징으로 이동하였다. 주로 도서관의 책들을 이용하여 역사 연구를 계속하고 집필활동을 펼쳤다.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베이징에서 약 4년간 체류하게 되며 3·1운동 이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의원으로 일을 했지만 이승만의 외교론에 대립하다가 공직을 사퇴한다. 이처럼 외교론, 준비론, 그리고 자치론을 비판하고 또 이광수나 최남선의 문학을 비판했던 그의 사상은 무장투쟁과 민중직접혁명으로 압축된다.



04 독립운동과 순국 : 1919-1936 / 34-49세

정부와 같은 권력이 없다면 제국주의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 아래, 단재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1923년, 무정부주의 선언문으로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1927년, 조선 국내에서 일어난 신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해외와 국내의 해방전선을 모색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좌우합작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 후 민족해방운동의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외국환어음변조 사건으로 1928년, 타이완의 지룽우체국 앞에서 피체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10년형을 언도받았고, 1936년 옥중에서 돌아가셨다. 그가 가신 해, 병보석이라는 뜻밖에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는 친일파가 주선하는 보석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죽겠다라 하며 거부하였다. 그해 2월 21일,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던 그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



독립혁명선언서 작성과 감옥수용생활

왼쪽부터 「조선혁명선언」과 수용생활을 한 뢰순감옥 당시 모습

05 사후의 단재 신채호

신채호는 죽어서도 편치 못했다. 그의 한 줌 유골이 압록강을 건너고, 2월 24일 경성역을 지나 청주에 이르러 고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현주소)로 운구되었다. 당시 단재는 호적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통치를 부정한 단재가 일제의 호적에 올라 있을 수가 없었다. 호적에 올리는 순간, 단재는 일제의 신민이 되는 것이므로 단재는 단호히 호적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일제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 살아서 한국한 경우 새로운 국적과 호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과 호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에 이르러 겨우 국적을 되찾게 된다.



작가연보

- 1880** 1880년 11월 7일에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현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233번지) 소재지인 외가에서 부 신광식(申光植)과 밀양 박씨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 1887** 부친이 별세하자 대대로 집안이 모여 살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 742번지로 이사하여 조부의 개인 글방에서 엄격한 한문 교육을 받았다. 9세에 통감(通監)을 해독하고 10세에는 시를 지었으며, 14세에 사서삼경을 독파함으로써 인근에 이름을 떨쳤다.
- 1895** 풍양조씨(趙씨)와 결혼했다.
- 1897** 당시 목천(木川)에 있던 구한말의 재상이자 대학자인 양원(陽園) 신기선(申箕善)의 집에 드나들며 신학문 등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다.
- 1898** 가을에 상경하여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들어간 뒤에 성균관장 이종원(李種元)의 총애를 받았고, 이남규(李南珪)의 애제자로서 변영만과 함께 인정을 받았다. 또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민권 운동을 전개하다가 12월 25일에 간부 및 회원들과 한때 투옥되기도 했다.
- 1901** 향리 부근에 있던 문동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 1903** 성균관에서 조소앙 등과 친일 매국 무리에 대한 성토문을 작성하고 유생들과 일대 시위를 벌였다.
- 1905** 2월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고, 향리를 찾아온 장지연의 권유로 『황성신문』의 논설위원직을 맡아 계몽적인 논설을 발표했다. 또 상투를 잘라버리고 신식 머리를 했다.
- 1906** 『황성신문』이 폐간되자, 양기탁의 천거로 『대한매일신보』 주필이 되어 언론활동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작가연보

- 1907** 광학서포(1906년, 문명개화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출판사)에서 번안물인 『이태리건국삼결전』을 출간했다. 비밀 결사인 신민회에 참여하여 취지문을 기초했으며,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담배를 끊었다.
- 1908** 가정교육과 여성의 계몽을 위하여 순 한글 잡지 『가정잡지』를 편집하고 간행했으며, 『대한매일신보』에 「성웅 이순신」을 연재했다. 또 각종 학회지에 애국적인 성향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1909** 『대한매일신보』에 「동국거절 최도통전」을 연재하고 『천희당시화』(※여전히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를 발표했으며, 청년학우회를 발기했다.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장남 관일(寬日)을 여인 뒤 부인과 따로 살면서 망명을 준비했다.
- 1910** 『독사신론』을 발표했다. 4월에 나라를 잃을 것을 예감하고 안창호, 이갑, 이종호 등과 중국으로 망명하여 청도(靑島)에 안착한 뒤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청도회의를 개최했다. 망명할 때 그는 안정복의 『동사강목』 친필본을 가지고 갔다.
- 1911**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윤세복, 이동휘, 이갑 등과 광복회를 조직하여 부회장으로 활약했으며,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동지를 규합할 목적으로 『해조신문』, 『청구신문』, 『권업신문』을 발행했다.
- 1913** 병과 가난에 시달리다가 신규식의 초대로 상해로 가서 망명 동지들과 사귀었다.
- 1914** 백두산과 남북 만주 일대의 고구려 옛터, 광개토대왕비를 답사하고 역사 연구에 커다란 자극을 받았으며, 『조선사』 집필에 착수했다.
- 1915** 북경에 머물면서 북경 도서관을 드나들며 글쓰기에 주력하는 한편, 동지 규합에도 힘써 신규식과 신한청년회를 조직하고 박은식, 문일평 등과 박달학원을 세웠다. 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중항일공동전선을 제의하기도 했다.

작가연보

- 1916** 3월에 자전적 소설 『꿈하늘』을 집필했으며, 대중교의 나철이 자결한 것에 통분했다.
- 1918** 역사 저술을 계속하며, 『북경일보』등에 논설을 발표했다. 『중화보』에도 논설을 기고하여 신문의 판매 부수가 늘었으나 교정 잘못을 질책하고 집필을 거절했다.
- 1919** 2월 무오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 39인의 한 사람으로 서명했으며, 7월에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의정원 의원으로 뽑혔고 전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여운형이 타협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것과 이승만이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을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임시정부가 무력한 것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비판한 뒤에 임시정부에서 나왔다. 이후 비밀 결사인 대동청년단 단장으로 추대되고 신대한청년동맹 부단주를 역임하였으며, 주간지 『신대한』의 주필이 되어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맞섰다.
- 1920** 4월에 북경으로 가서 제2회 보합회에 참여하였으며,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의 중매로 북경에 망명하여 유학중인 25세의 박자혜(朴慈惠)와 결혼하였다.
- 1921** 아들 수범(秀凡)이 태어났다. 한문 잡지 『천고(天故)』를 창간하였으며, 4월에 심산 김창숙, 이극로 등과 북경에서 군사통일회의 준비회를 열어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규탄하고 이승만의 불신임과 임시정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통첩을 발송했다. 5월에는 군사통일회의에서 결의한 국민대표회의를 결성하기 위해 김정묵(金正默), 박봉래(朴鳳來)와 함께 통일책진회(統一策進會)를 발기했다. 이 해부터 1923년 무렵까지 치타와 하바로프스크 원동군(遠東軍) 역사 교관으로 활약하고 흑룡강 연안에서 『자본론』, 『전쟁론』 등을 번역하여 독립군 교재로 사용했으며, 자유시사변이 일어나자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

작가연보

- 1922** 극도의 가난으로 관음사(觀音寺)에서 중노릇을 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조선사에 대한 커다란 업적을 완성했다. 제1권 「조선사통론」, 제2권 「문화편」, 제3권 「사상 변천편」, 제4권 「강역고」, 제5권 「인물고」, 기타 부록으로 된 방대한 원고를 집필했지만 전해지지는 않는다.
- 1923** 1월에 약산 김원봉의 요청으로 의열단의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고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 혁명을 제창했으며,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섭렵했다. 가족들을 귀국시켰다.
- 1924** 다물단의 선언문을 썼다. 최남선이 경영하는 『시대일보』에서 환국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 1925** 『동아일보』에 「전후 삼한고」, 「이두문 명사 해석법」 등의 원고를 보내어 연재했다. 이때부터 민족 운동의 대안으로 무정부주의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1927** 1월에 민족단일전선 신간회의 발기인이 되었으며,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가입했다. 김창숙 등과 잡지 『탈환』을 발간하는 한편, 잡지 『동방』을 펴내기도 했다.
- 1928** 눈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가족을 북경으로 불러 재회했다. 이해 초에 『용과 용의 대격전』을 집필했으며, 4월에는 조선인 무정부주의자들의 북경회의 동방연맹대회에 참여하고 선언문을 썼다. 5월 8일 중국인으로 변장하여 대만으로 가다가 기륭항(基隆港)에 상륙하기 직전 일본 수상서원(水上署員)에게 체포되어 대련(大連)으로 호송되었다.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국제 위체(爲替)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작가연보

- 1929** 아들 두범(斗凡)이 태어났다.
- 1930** 대련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 감옥으로 옮겨졌다. 서울에 있는 동지들이 그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던 조선 고대사 관계 논문들을 모아 조선일보에서 『조선사연구초』란 이름으로 책을 펴냈다.
- 1931** 민세 안재홍의 주선으로 『조선일보』에 「조선사」와 「조선상고문화사」가 연재되었다. 일본 연대(年代)로 표기된 신문에 글을 실을 수 없다며 연재 중지를 요청했다.
- 1935**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친지들이 가출옥을 종용했지만, 친일파의 보증으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 1936** 2월 18일 여순 감옥에서 뇌일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2월 21일 오후 4시 20분에 한 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순국했다. 여순 감옥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 마을 산기슭에 묻었다.
- 1943** 부인 박자혜 여사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1962** 2월 1일 대한민국 공로훈장 복장(復章)이 수여되었다.
- 198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 마을에 영당이 준공되었다.
- 1996** 12월 8일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청주 예술의 전당 앞마당에 동상이 건립되었다.